

“독서의욕 고양시킬 환경조성 필요”

유재천교수,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에서 밝혀



유재천교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문예물을 손꼽고 있으며, 연간 독서량은 18.5권인 것으로 조사되어 일본대학생들의 28.5권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가운데 44%가 금서를 읽은 적이 있고 북한원전은 20%가 접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금서를 읽은 학생 가운데 87%가 이들 책이 금서로 지정될 만한 ‘위험요소’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병익)가 “대학생 집단의 독서형태, 독서환경 및 출판산업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도서의 출판과 출판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재천교수에게 의뢰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에서 밝혀졌다.

전문대생을 제외한 대학 재학생 전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대학생의 1천분의 1인 670명을 표본으로 삼아 성별(남학생 : 69%, 여학생 : 31%), 학년별(1학년 : 24.4%, 2학년 : 25%, 3학년 : 26.4%), 전공별(인문계열 : 18.7%, 사회계열 : 32.9%, 자연계열 : 42.1%, 예체능계열 : 6.3%)로 세분, 조사한 이 연구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독서집단인 대학생들의 독서실태를 국내 최초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유재천교수의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실태

지난 한달간(89년 10월) 대학생들이 읽은 책의 권수는 평균 약 3권이였다. 그리고 1년간

평균 독서량은 약 18.5권. 전공분야별 1년간 독서량은 인문계열(21.4권), 사회계열(19.27권), 자연계열(16.39권), 예체능계열(16.26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①어린왕자 ②데미안 ③대지 ④태백산맥 · 삼국지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⑤죄와 벌 ⑥사람의 아들 · 좁은 문 ⑦지와 사랑 · 생의 한가운데 · 이방인 ⑧노인과 바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천국의 열쇠 · 철학에세이 · 성경 ⑨젊은 날의 초상 · 여자의 일생 ⑩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성자가 된 청소년 · 수레바퀴 밑에서 · 어머니 · 제인에어 · 탈무드 · 파우스트 순으로 나타나 고교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도서목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빈도수 10위 이내의 가장 감명 깊었던 저자의 이름은 헤르만 헤세, 펄 벅, 이문열, 생텍쥐페리, 도스토예프스키, 조정래, 앙드레 지드, A.J.크로닌 · 루이제 린저, 헤밍웨이, 카뮈 · 톨스토이 등으로 나타나 감명 깊었던 도서목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저자보다 외국의 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생들이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을 읽었던 나이는 평균 18세. 이를 다시 각급 학교 시절로 환산해 보면 국민학교 약 9%, 중학교 시절 약 19%, 고교시절 약 35%, 대학시절 약 37%로 나타나 중 · 고교 시절의 독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고교시절에 감명 깊었던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대학시절이라고 응답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②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③성자가 된 청소년 ④태백산맥 ⑤젊은 날의 초상 ⑥장길산 ⑦데미안 · 사람의 아들 ⑧철학에세이 ⑨남부군 ⑩꽃파는 처녀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 절반의 실패 · 어머니 등이며, 최근 읽은 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저자는 이문열, 김우중, 조정래, 바바 하리다스, 황석영, 헤르만 헤세, 윤정모, A.J. 크로닌, 시드니 셸던 · 이외수, 김윤희, 김성중 · 고리끼 · 루이제 린저 · 카뮈 · 박범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고교시절의 독서형태와 비교할 때, 번역물보다 국내작가나 저자의 책을 많이 읽고 있고, 소설 일반도에서 벗어나 다른 장르의 책들이 목록에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년 평균독서량이

18.5권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 대학생들의 28.5권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비교됐다.

특히, 일생 중 가장 감명깊게

책을 읽었던 평균연령이 18세로 밝혀져

이 시점의 독서환경 개선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함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한 책들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①한국현대소설(해방후) ②외국소설 ③사회과학 ④에세이 · 평론 ⑤교육 · 철학 · 사상분야 順. 이 결과는 87년에 조사된 일본대학생들의 경우와 유사하나 일본의 경우 과학소설 · 추리소설 · 미스터리가 세번째 순위로 집계된 점과 다르다.

대학생들의 약 62%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있다고 했다. 저학년일수록, 여학생일수록 현재 읽고 있는 책이 많은데 소설, 철학 · 사상, 사회과학, 수필 순으로 읽고 있고, 앞으로 읽기를 원하는 책의 내용은 ①사회현실 인식과 비판능력 함양 ②문학 ③역사 ④가치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⑤전공분야와 관련된 것 ⑥예술 ⑦종교 ⑧유물론 ⑨철학(유물론 제외) ⑩간접체험을 통한 사고의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일본의 경우 대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순위는 ①삶에 대하여 ②円高 · 무역마찰 ③대학생의 심리 ④컴퓨터 ⑤정신분석 ⑥여성론(페미니즘) ⑦금융 · 재무 ⑧우주론 ⑨생명과학 · 바이오테크놀로지 ⑩하이테크놀로지 · 신소재 등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대학생들이 보다 원론적이며 철학적 내용을 선호하는 데 반해 일본대학생들은 실무적이며 21세기 지향적인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을 알게 된 경로는 ①친구, 선배, 부모의 소개나 권유 ②집에 있던 책 ③수업시간에 소개 등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읽었던 가장

인상에 남는 책을 알게된 경로는 서점 · 도서관, 친구 · 연인간의 화제, 교수 · 선배의 소개 등의 순이었다.

책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원은 ①친구 ②신문이나 잡지의 서평 ③저자 ④교수의 순이었고 1학년의 경우는 다른 학년보다 서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44%가 금서 읽은 경험 있어

금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44%이고, 없다가 약 56%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약 47%, 여학생들이 약 38%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약 55%), 사회과학계열(약 54%), 예체능계열(약 43%) 자연과학계열(약 32%)순으로 금서를 읽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금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들 가운데 약 87%가 이들 책이 금서로 지정될 만한 책들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원전의 경우 응답자의 약 20%가 접해 보았다고 했다. 전공계열별로 보았을 때 북한원전을 읽어본 비율은 인문계열(약 32%), 사회과학계열(약 22%), 예체능계열(약 15%), 자연계열(약 13%) 순. 기억에 남는 북한원전은 ①피바다(민중의 바다) ②꽃파는 처녀 ③김일성선집 · 조선통사 · 조선철학사 ④봄우뢰 · 한 자위단원의 운명 · 주체총서 ·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 · 청춘송가 · 두만강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거의 매일 이용한다(약 24%), 일주일에 서너번 이용한다(약 19%),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용한다(약 24%) 등으로 대학생들의 대부분인 약 67%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이용목적이 학과공부나 시험공부를 위해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약 65%에 이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서교육의 실태에 있어 교수들은 자주(약 17%), 또는 가끔(약 61%) 학생들에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약 49%) 전혀 없다(약 25%)는 비율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들에게 책을 가끔이나 추천하는 경우는 약 26%에 지나지 않으며, 독서교육을 가끔한다는 경우도 약 18%에



지난 17일 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던 한국출판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 이날 발표회에서는 유재천교수의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와 함께 전원재교수의 「출판유통 현대화 방안연구」도 발표됐다.

불과한 비율을 나타냈다.

독서서클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 31%가 서클이나 학회에 가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들 독서서클 가운데 약 66%가 독서목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률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독서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참고사항과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참고할 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년 평균 독서

량은 18.5권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독서량은 전체국민의 일년간 평균 독서량에 견주어 볼 때 월등하게 많은 것이지만, 87년에 조사된 일본대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 25.8권에 비하면 약 72%의 수준이다.

둘째, 일생중 가장 많았었던 책을 읽었던 평균연령은 18세로 밝혀졌다. 특히, 그 책을 중학교시절과 고교시절에 읽었다는 비율이 각각 19%와 35%로서 모두 54%에 이른다. 따라서 중고교시절의 독서가 한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이 시절의 독서환경개선과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된다.

셋째, 고교시절의 독서경향과 비교할 때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고교시절의 문학작품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과학 등 독서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저작물을 많이 읽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대학생들의 관심영역이 현실문제와 정보화사회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지식이나 첨단과학 등 비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인식과 관련된 원론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 이념갈등 구조의 해소, 경제정의의 실현 등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독서의 관심영역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책 선택에 서클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들의 영향은 매우 강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금서를 읽은 학생 가운데 절대다수인 약 87%가 책 내용에 대해 금서라고 할 만한 까닭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금서 목록의 폐지가 정책상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북한원전을 읽은 대학생들은 사회과학도서보다 문학작품을 더 많이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학생들의 공산주의 수용이 심정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체계적인 이론무장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의욕은 일본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의욕을 보다 고양시킬 환경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읽을 만한 책이 아주 많다는 비율(약 42%)이 일본 대학생들(약 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판계가 보다 다양한 도서를 출판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책 정보의 풍부한 공급, 서평의 활성화, 독서교육 기회의 확대, 다양한 도서목록의 구비, 도서관 장서의 증수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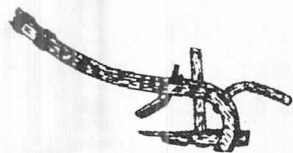
넷째, 대학생들이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그같은 기회는 매우 드문 현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독서교육, 대중매체나 출판전문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교육이 요청된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차치하고 먼저 대학도서관을 충실하게 만드는 일이 진척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독서를 위한 장서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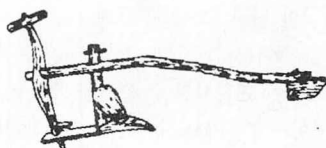
**쟁기출판기획
쟁기출판사**

136-01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35-19번지
전화: 763-6818
FAX: 763-6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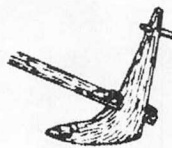
쟁기에서는 이번 시베리아개발공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만, 사람의 땀이 뵈 쟁기보다는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더 믿는 이들의 독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애석하여 하루저녁에는 모든 쟁기 식구들이 자리를 만들어 막걸리를 놓고 마시면서 심한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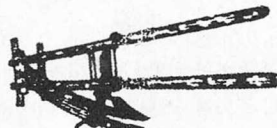
게르만 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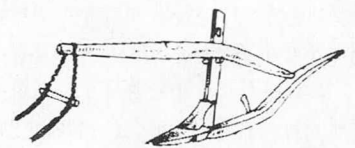
중국 쟁기



인도 쟁기



러시아 쟁기



우리나라 쟁기의 하나

출판·광고기획·편집대행·표지장정·일러스트레이션·원고대행·컷·만화·만평·카타로그·사식·인쇄제작·광고전단